

# 외인 3인방 “우린 제법 KIA와 잘 어울려요”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애런 브룩스(왼쪽부터), 드류 가농, 프레스턴 터커가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나스 테리 스포츠 파크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가농·브룩스, 새 문화 배우기 앞장  
가농 “안녕한가농” 익살스런 인사  
선수들에 스스럼 없이 다가서

터커, 웨이트 통해 타격 힘 상승  
브룩스·가농 위력투 과시  
캠프 거처며 전력 상승 기대감

“땀 감독, 이기는 법 아는 지도자들  
시즌 많이 이기는 것이 목표  
챔피언십 진출 보여주겠다”

올해는 다르다. 팀에 잘 녹아든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3인방’이 반전의 시즌을 이끈다.

KIA의 2019시즌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외인 농사 흉작’이 꼽혔다. 야심 차게 외국인 선수들을 모두 교체했지만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다. 타자 제레미 해즐베이커는 지난해 1호 퇴출 선수가 되어 가장 먼저 짐을 꾸렸고, 외국인 원투펀치를 기대했던 제이콥 터너와 조 윌랜드는 기록 많은 시즌을 보내며 단 15승을 합작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해즐베이커의 대체 선수로 합류한 프레스턴 터커가 안정감 있는 활약을 하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올 시즌에도 KIA 성적을 좌우할 주요 전력으로는 ‘외국인 3인방’이 꼽힌다. 스프링 캠프를 통해 엿본 전력은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다.

일단 신인 외국인 선수들은 새로운 문화와 리그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

낮선 취재진에게도 “안녕하세요”를 먼저 외치는 가농은 “안녕한가농”이라는 인사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한다.

한국 음식도 가리지 않는다.

가농은 “음식이 너무 좋다. 모두 친절하고 선수들도 잘해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새 팀에서의 생활에 관해 이야기했다.

브룩스도 선수단 적응을 이미 끝냈다.

문경찬의 영어 선생님 역할을 맡는 등 선수들이 스스럼없이 다가가고 있고 브룩스 역시 새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훈련이 끝난 뒤 90도도 감사 인사하는 브룩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브룩스는 “미국 문화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선수들과 재미있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캠프 식단이 미국식 한국 음식이라서 좋다. 한국에서도 많은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들에게는 윌리엄스 감독이라는 특별한 구심점이 있다. 브룩스는 지난 시즌 오�클랜드에서 윌리엄스 감독과 한 팀에서 생활했고, 가농은 윌리엄스 감독을 따라 KIA로 왔다.

브룩스는 “윌리엄스 감독은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선수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잘 아는 지도자다. 또 이기는 법을 잘 아는 지도자”라면서 그와 함께 만들어갈 2020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많은 KBO리그 팀들의 영입 대상이었던 가농은 “KIA가 2년 전부터 관심을 보이며 연락을 계속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윌리엄스 감독이 있어서 KIA를 선택하게 됐다. 그가 어떻게 이 팀을 이끌어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KIA에 왔다”고 설명했다.

터커 역시 “올 시즌 더 많이 이기는 것이 개인

적인 목표이자 팀의 목표이다. 윌리엄스 감독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많은 게임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이들은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실력도 갖추고 있다.

이미 KBO리그를 경험한 터커는 웨이트를 통해 힘도 더했다. 연습경기에서 좋은 수비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그는 타석에서는 장타를 더 보여줄 계획이다.

터커는 “특정한 수치를 생각하기보다는 매일 잘 치려고 노력하면 좋은 기록이 나올 것이다”며 “더 좋은 기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브룩스와 가농은 ‘빅리거’ 출신답게 위력적인 공을 과시하면서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3cm 장신의 가농은 큰 키에서 내리꽂는 150km를 웃도는 강속구가 매력적이다. 커브와 체인지업으로 타이밍을 뺏는 데도 능하다. 브룩스는 150km대 강속구파는 아니지만 뛰어난 제구와 위력적인 투심성 체인지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우승’을 같은 목표로 이야기했다.

/wool@kwangju.co.kr

## 손 없는 토트넘 ‘부진의 늪’

올버햄프턴전 역전패 ... 손흥민 부상 후 3연패

손흥민(28)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이 올버햄프턴에 역전패하면서 3연패 부진에 빠졌다.

토트넘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2-3으로 졌다.

이로써 토트넘은 손흥민을 팔 골절 부상으로 잃은 뒤 정규리그 2연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더하면 3연패의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권 진입이 눈앞이었던 토트넘은 다시 7위(승점 40)로 내려앉았다.

반면 올버햄프턴은 승점 42점을 쌓아 토트넘을 끌어내리고 6위로 올라섰다.

스테판 베르헤베인의 선제골과 세르주 오리에의 추가골로 2-1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 들어 수비 조직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며 승리를 내줬다.

올버햄프턴은 후반 12분 아다마 트라오레의 ‘황소 돌파’에 이어 라울 히메네스, 매트 도허티로 이어진 톱나바퀴 같은 패스워크를 디오고 조타가 문전 슈팅으로 마무리해 2-2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28분에는 조타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토트넘 수비수를 제치고 왼발 슈팅으로 역전 골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 황의조 풀타임...3경기 연속골은 실패

보르도, 니스와 1-1...기성용 프리메라리가 데뷔 불발

황의조(28)가 풀타임을 소화한 프랑스 프로축구 지롱댕 보르도가 니스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보르도는 2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 스타드 보르도에서 열린 2019-2020시즌 리그앙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니스와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1-1로 비겼다.

직전 ‘최강’ 파리 생제르맹(PSG)전까지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린 황의조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부지런히 누볐지만, 3경기 연속 득점에는 실패했다. 디종전(2-2), PSG(3-4)전에 이어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한 보르도는 12위(승점 36)에 자리했다.

기성용(31)이 새로 입단한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는 스페인 마요르카의 이베로스타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메라리가 26라운드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네마나 막시모비치에 헤더 골을 내줘 0-1로 졌다.

기성용은 입단 뒤 첫 경기에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휴식을 취했다.

기성용과 포지션이 겹치는 중앙 미드필더 살바 세리아가 후반 45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다음 경기에서 기성용이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2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한 마요르카는 강등권인 18위(승점 22)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 ‘49전 50기’ 임성재 감격의 PGA 첫 우승



임성재(22)가 2019-2020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총상금 700만달러) 정상에 오르며 기다렸던 데뷔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임성재는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파70-712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선두 경쟁을 벌이던 매켄지 휴스(캐나다)를 1타 차 2위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018-2019시즌 PGA 투어 신인왕을 거머쥔 임성재는 자신의 50번째 PGA 투어 무대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정식 데뷔 이후로는 48번째 대회다.

임성재는 데뷔 48번째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무관의 신인왕’ 타이틀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9월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 준우승이 임성재의 최고 성적이였다.

임성재는 최경주(50·8승), 양용은(48·2승), 배상문(34·2승), 노승열(29·1승), 김시우(24·2승), 강성훈(32·1승)을 이어 한국인 7번째로 PGA 투어 우승자 반열에 올랐다.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한 한국인 선수는 2009년 양용은 이후 임성재가 11년 만이다.

우승 상금 126만달러(약 15억2000만원)를 받은 임성재는 단숨에 시즌 상금왕 3위(322만468달러)로 올라섰다. 저스틴 토머스(미국·421만4477달러),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350만1990달러)만 임성재를 앞선다.

임성재는 또 페덱스컵 포인트 1268점으로 매킬로이(1083점)를 제치고 이 부문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1위는 토머스(1403점)다.

3타 차 공동 5위로 4라운드를 출발한 임성재는 첫 5개 홀에서 4개의 버디를 쓸어 담으며 힘찬 시동을 걸었다.

7번 홀(파3)에서 보기를 쳤지만, 11번 홀(파4) 버디로 만회해 한때 단독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12번 홀(파4)과 13번 홀(파4)에서 연속 보기로 주춤하면서 잠시 순위가 내려갔다.

임성재는 ‘베어 트랩’에서 승부를 걸었다. 베어 트랩은 난코스인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에서도 어렵기로 유명한 15·16·17번 홀을 일컫는 별명이다.

임성재는 15번 홀(파3)에서 티샷을 홀 2m에 붙이고 버디를 잡아 다시 공동 선두가 됐다. 16번 홀(파4)에서는 티샷을 벙커에 빠트렸지만, 파로 잘 막았다.

이때 임성재와 공동 선두를 달리던 휴스가 16번 홀에서 보기를 쳐서 임성재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휴스가 17번 홀(파3)에서 약 16.5m 버디에 성공하며 추격했지만, 임성재도 17번 홀 2m 버디 퍼트를 넣어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임성재와 휴스는 18번 홀(파5)에서 나란히 파를 기록했다. 임성재가 라운드를 마친 뒤 또 다른 추격자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가 17번 홀에서 약 7.5m 버디를 넣으면서 1타 차로 쫓아왔다.

플리트우드는 그러나 18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워터 헤저드에 빠트리며 보기를 기록해 3위에 만족해야 했다.

안병훈(29)은 이날 1~4번 홀에서 연속으로 잡은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추가해 3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3언더파 277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안병훈은 올 시즌 5차례 톱10 피니시를 기록하며 이 부문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이경훈(29)은 최종합계 4오버파 284타로 공동 38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